

No.80

Japan Weekly Digest

2011. 4. 2. ~ 4. 8.

□ 금주의 이슈

- 사망·행방불명 2만 7천명, 피난자 15만 7천명
- 정부·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비판 속출
- 일본은행 총재, 일본부품소재 공급은 6~7월경 회복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산성, 신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
- 전력사용제한을 규정하는 전력수급방안 검토
- 피해기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잇따라 발표

□ 일본기업전략

- 재해로 일본기업의 투자 급감
- 탄소섬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생산 가속화
- 히타치DP, 대만기업에 액정DP 위탁생산 확대

□ 보고서 리뷰

- 동북대지진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사망·행방불명 2만 7천명 이상, 피난자 15만 7천명

-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는 1만 2,690명, 행방 불명자는 1만 4,736명으로, **합계 2만 7,426여명**임
- 17개 도도부현 2,340 곳에서 15만 7000명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음
- 사망자는 미야기현 7,743명, 이와테현 3,709명, 후쿠시마현 1,177명. 경찰집계에 의한 행방불명자는 미야기현 6,646명, 후쿠시마현 4,422명, 이와테현 3,664명 등 6개현에 걸쳐 있음

○ 정부·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비판 속출

-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방출을 둘러싸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속출하고 있음
-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대량 방출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
- 에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으나 국제사회와 일본 수산업계에서 반발이 속출
- 이런 일본정부의 행동에 일본국민도 반발하는 추세. 요미우리신문이 1~3일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, **정부의 원전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1%**라고 보도

○ 일본은행 총재, 부품소재 공급은 6~7월경 회복

-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는 7일,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부품소재 공급망은 **6~7월경에 회복**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
- 일본경제는 "(전력부족을 포함) 공급제약이 해소되면,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" 라고 언급. 피해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한 **新대출제도**는 5월에 시작할 생각이라고 표명
- 일본은행의 **新대출제도**는 피해복구와 부흥을 위해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, 금리 상한은 0.1%, 대출기간은 1년, 대출 총액은 1조엔. 금융기관 당 대출 한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, 4월28일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표 예정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신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

- 경제산업성은 4일, 국가에너지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 「신에너지기본계획」을 개정하기 위해, 새로운 지식인회의 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-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간 총리는 3월31일 현행 원전 위주로 되어있는 에너지 공급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표명
- 그러나, 원자력발전의 대체에너지로 기대되는 태양광, 풍력 등 그린에너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과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까지 난항이 예상

○ 사용전력제한을 규정하는 전력수급방안 검토

-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대신은 5일,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전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대책으로, 도쿄전력 관할 기업에게 최대 사용전력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
- 전력수요 억제를 위해 대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여름철 순간 최대전력을 평년보다 25~30% 제한할 방침
 - * 소량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20%, 가정은 15% 정도 제한
-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6000만 킬로와트로 예측하고 도쿄전력의 공급능력이 4500만 킬로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사용량을 25%정도 삭감시키는 방안을 검토(위반할 경우 100만엔 이하 벌금)

○ 피해기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잇따라 발표

-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, 피해자 고용 등 새로운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
- 중소기업청은 **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, 도도부현과 함께 용자제도의 채권포기**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채무 부담을 덜어 줄 방침
- **지진 재해로 직장을 잃은 피해자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90만 엔의 조성금 지급**(대기업은 50만엔), 복구사업에 현지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지역의 고용확보와 기업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재해로 일본기업의 투자 급감

-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기업의 투자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, 설비투자과 M&A가 지진발생 이후 급감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
- 미쓰비시머테리얼은 3월, 발표 예정이었던 경영계획을 연기하였고, 세이코엡손은 올해 신규투자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 보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
- M&A컨설팅회사인 레코후 조사에 의하면 지진 재해 발생 후인 3월 12~31일간 M&A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(141건) 약 50% 급감한 것으로 조사

○ 급증하고 있는 탄소섬유 수요에 대응, 해외생산 가속화

- 닛케이신문은 6일, 가벼우면서 강도가 뛰어난 탄소섬유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
- 세계수요가 매년 15%이상 확대될 전망이고, 지진피해복구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해외생산을 늘려 공급하겠다는 전략
- 도레이는 1월, 한국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, 미쓰비시레이온과 도레이도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에 탄소섬유 공장건설을 검토
- 경산성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으나, 원유수입국인 사우디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공장건설을 인정하겠다는 방침

○ 히타치DP, 대만기업에게 액정DP 위탁생산

- 히타치DP는 대만치메이(CMI)에 액정패널 위탁생산을 확대하고, 타블렛 단말기와 스마트 폰 전용 소형패널도 위탁할 방침이라고 발표
- 여름철 전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MI에 위탁생산을 통해 조달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
- 주력공장인 모바라사업소는 도쿄전력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사용량 제한에 대비, CMI에게 생산을 위탁시킴으로써 조달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수요가 확대될 스마트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

□ 보고서 리뷰

“동북대지진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”

-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동북대지진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과 생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
- 해일과 원전사고에 의한 전력부족으로 생산중단, 물류정체 등의 영향이 동북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지역에 광범위하게 끼치고 있다는 내용

□ 무역·생산: 일본에서 부품소재조달이 줄어들어 생산이 감소될 가능성

- 대일무역은 축소되겠지만 부품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
 - 일본에서 생산중단, 물류정체, 제한정전 등으로 부품소재조달에 차질이 생겨 아시아지역에서 생산·판매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
 - 아시아지역의 대일본 수입에서 차지하는 **부품소재 비율은 약70%**로 전기, 화학, 철광, 금속 등 일본 의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

□ 아시아진출 일본기업 동향: 부품 재고는 1~2개월분 확보

-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의 원재료·부품조달 상황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에서 조달은 감소되는 경향
 - '10 일본에서 부품조달비율은 한국 38.2%, 말레이시아 29.1%, 태국 31.0% 등 약 30%로 현지조달이 많아 지진피해에 따른 일본의 생산차질 영향은 크지 않음
 -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은 평균 1~2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은 생산 판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
 - **대체생산과 복구수요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생산·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**
 - * 카메라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일본공장의 생산중단으로 태국으로 대체생산

□ 시사점

-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부품소재 현지조달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 기업과 거래확대 및 대체생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 『東北大震災のアジア経済への影響』 東京三菱UFJ銀行

*출처: <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sta2011/20110405ASEANTOPICS.pdf>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지진재해 부흥을 위한 긴급대책 추진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4월4일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opinion/r_report/pdf/201103_fukkoul.pdf
- (2) 『대지진 재해에 있어서의 경제부흥 프로세스』 야노경제연구소, 4월5일
*출처:<http://www.yano.co.jp/press/pdf/752.pdf>
- (3) 『지진재해의 영향과 부흥지원에 대한 기업 의식조사』 TDB, 4월6일
*출처:http://www.tdb.co.jp/report/watching/press/pdf/keiki_w1103.pdf
- (4) 『재해로부터 부흥』 경제동우회, 4월7일
*출처:<http://www.doyukai.or.jp/policyproposals/articles/2011/pdf/110406a.pdf>
- (5) 『동북대지진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』 미쓰비시도쿄UFJ, 4월7일
*출처:<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sta2011/20110405ASEANTOPICS.pdf>
- (6) 『후쿠오카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아시아기업』 후쿠오카도시연구소, 4월8일
*출처:<http://www.urc.or.jp/syuppan/kenhou/documents/22senryakuyuuti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4월 4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착수(경산성) ○ 경상대신, GE회장과 회담(히타치CEO참석, 경산성) ○ 3월 지진 발생이후의 기업경기판단 조사(일본은행) ○ 3월 Monetary base(일본은행)
4월 5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OECD 경제전망 발표 ○ 정부, 피해자 고용지원·고용창출회의 개최
4월 6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(7일까지) ○ 2월 경기동행지수 발표 (내각부)
4월 7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라카와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 ○ 3월 외환준비고 발표(재무성)
4월 8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월 경기Watcher 발표(내각부) ○ 2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